

효능감, 그릿, 교사 관계가 중학교 1학년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 교양교육 발전 방향 모색

유지성*

1. 서론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
4. 결론 및 논의

■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주관적 학업 성취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년의 중학교 1학년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가정 배경을 통제 변수로 하고 자기효능감, 그릿, 교사관계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자기효능감, 그릿, 교사관계, 가정 배경의 세부 문항과 학업 성취도 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학업 성취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토대로 교양 교육에 방향에 대해서 교육적 함의를 제공한다.

*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양대학 조교수 jisyoo@kku.ac.kr

1. 서론

청소년이나 대학생이나 기초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대학에서는 특히 기초교육을 위해 교양교육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미국 어느 대학의 벽에는 ‘지식은 인간을 고귀하게 만든다’는 글귀가 적혀 있다. 지식은 인간을 부자로 만든다거나 유능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교양이 쌓이면 인간은 스스로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교양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힘이므로, 기초적 교양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김택천, 2013). 이렇듯 자아를 탐색하고, 계발하고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삶의 목표를 계획, 실천하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다양한 교양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아를 탐색, 계발하고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삶의 목표를 계획, 실천하는 시기로서 청소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학업이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학업에 투자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는 학업, 즉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학업 성취도는 진급과 진학, 졸업, 그리고 취업 등 각종 선발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평가 기준이다. 이것은 개인의 총체적인 능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사회적 지위, 더 나아가 개인의 미래를 결정할 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에 학업 성취도의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김성양, 조규판, 2018). 학업성취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수준의 경우, 성별, 능력, 가정 배경, 가족 구조, 부모의 기대 교육 수준, 사교육 참여, 부모, 교사, 교우와의 관계, 학습 태도 등이 학업성취에의 영향 요인들로 주로 제

시되고 있다(장희원, 김경근, 2015). 물론, 학생들이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지역사회와 학교의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연성은 열려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원하는 바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현황 및 필요 요건 등을 확인하고 학교와 가정의 사회자본을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성기선, 2010).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새로운 발달 단계 및 환경으로 갓 넘어온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자기효능감, 그릿(Grit), 교사관계, 그리고 이외에도 학생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가정 배경 변수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기 효능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성공적으로 성취한다는 데 대한 개인적인 신념인 동시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임효진, 이지은, 2016). 박영신, 이임순, 이상희, 김태우(2015)는 중학교 1학년 대상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이 있었는데, 특히 자기효능감 중에서 자기 조절학습 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높은 학업 성취도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김현진(2013)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 연구에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국어와 수학 성취에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국어와 비교하여 수학의 경우, 특히 학생들은 수학에 대해 효능 기대가 높을수록 더 높은 성취도 결과를 얻었다고 하였다. 이를 볼 때, 수학과 같은 과목은 내용이 심화될수록 어렵게 느껴지고 포기하는 경향이 커질 수 있는데, 이때 자기효능감이 더 나은 성취 결과로 이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임효진·이지은(2016)은 중학생 대상 분석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교사들의 수업 능력을 좋게 인식할 때 영어, 수학 과목에서 자기효능감과 학업 성취도가 높아졌다고 하였다. 또한 초기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이후의 자기효능감도 점차적으로 높아졌고 자기효능감과 학업 성취의 성장 요인들은 교과에 따라 상이한 관계 패턴을 나타냈다. 영어 과목의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학생이 이후의 성적 향상 정도도 빨랐다. 또한 자기효능감에 있어 빠른 변화를 보이는 학생은 성취도의 향상이 빨랐으나 수학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보이지 않았다.

이숙정·김희란·모화숙(2018)은 중학생 대상 분석 연구를 통해 동일 교과 내에서는 국어, 수학 교과의 학업 성취도와 자기효능감 간의 정적인 상보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다. 즉, 동일 교과 내에서 이전 해의 학업 성취도가 다음 해의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전 해의 자기효능감은 다음 해의 학업 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또는 이전의 자기효능감이 이후의 자기효능감 및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낮은 학년의 청소년일수록 초기부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효능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서 유념하고 교육적으로 적용해야 할 점이라고 하겠다.

또한 김복권(2017)은 고등학생의 수학 성취가 상 수준인 집단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수학 학업 성취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전체 집단과 상 수준 집단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수학 학업 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주영주·서혁·윤성혜(2017)는 고등학생 대상 분석 연구에서 국어 교과 효능감이 국어 교과의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시기적으로 진로 및 진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주요 교과목에서 쌓아온 효능감과 성취도 간의 관계는 더욱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해당 교과에 대해 학생이 형성하고 있는 효능감이 성취도에 유의하게 작용하고 또한 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자신의 효능감을 바탕으로 성취도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는 선순환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중·고등학생에게 있어 학업성취의 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교사들이 수업에서 다양한 활동, 피드백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교육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임효진·이지은, 2016).

다음으로, 장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성, 열정을 의미하는 그것

(grit)은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심을 받아 왔다(이정림, 권대훈, 2016). 그것은 목표 수행에 대한 관심 여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관심의 지속성, 지속적 노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내재적인 동기, 끈기와 같은 기존의 학습자 변인과는 구분된다(심미연·황명환, 2019).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그릿과 학업 성취도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있다. 대체로 고등학생은 다른 시기에 비해 학업에 있어 중요한 성과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서의 성취에 있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의미하는 그릿이 뒷받침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박찬호·황명환(2019)은 고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부모의 학업 관여와 그릿이 영어 학업성취를 정적으로 예측한다고 하였다. 또한 심미연·황명환(2019)의 연구도 동일 대상에 대해 그릿이 학습자의 영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볼 때, 그릿의 주요 속성인 관심의 지속성, 꾸준한 노력은 학습자들의 학습 수행에 있어 큰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보다 심화된 학습 수준이 요구되는 고등학생에게 있어 영어와 같은 주요 교과에서의 성과에는 그릿이라는 요소가 밑거름이 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학생들의 학업에 중요한 계기이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교사-학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최권 외(2013)는 중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수업 참여, 즉 행동적 참여, 정의적 참여, 인지적 참여 변인 모두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백병부·김정숙(2014)은 중학생 대상 분석 연구에서 교사-학생 관계가 영어와 수학 과목 모두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이는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 필요 적절한 역할을 하고 그 필요를 채움으로써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를 볼 때, 교육의 맥락에서 사회 계층 간의 불평등이 이어지지 않는 데에는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장희원과 김경근(2015)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학생들은 학업성취가 높았고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사를 깊이 신뢰할수록 학업성취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특히, 교사 신뢰는 부모 관계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운 영향력을 가졌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보다 높은 학업성취를 얻도록 하는 데 교사가 갖는 의미와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육 격차의 해소와 관련해서 교사의 역할이 가지는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교원 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선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꾸준히 연구가 이뤄진 가정 배경을 살펴보면, 변수용과 김경근(2008)은 중학생 대상 분석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질수록 교육적 관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학습과 생활 지도와 같은 형태의 교육적 관여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은 자녀의 영어 학업성취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여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한부모 가족의 부모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기선(2010)은 1988년과 2007년 서울시 중학생 대상 자료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20년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결정에 가정 배경 변인들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해졌고 학생들의 사회심리적 변인과 교육적 노력 정도를 나타내는 학습 경험 변인들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가정 배경에 따른 학업 성취도 격차가 심화되어 왔고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학교 교육을 통해서 가정 배경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제도 및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백병부(2012)는 중학생 대상 종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배경은 학생 및 학교 수준 모두에서 국어와 영어 성적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고 두

수준에서 영어 과목의 영향력이 더 컸다고 하였다. 또한 전윤지·김경근(2013)의 분석 연구에서 부모 학력과 양육 태도는 중학교 자녀의 학업성취에 직접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오락 목적 컴퓨터 사용은 줄어드는 반면, 학습 목적 사용은 늘어났다. 이는 학생들의 성취 및 생활 전반의 부모의 학력이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볼 때, 부모의 세심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사회 계층의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진로 및 진학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장희원과 김경근(2015)은 중학생 대상 분석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학업성취의 상승효과를 더 크게 누린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가정 배경에 따른 학업성취의 격차가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게 나타나는 학교에서 더욱 확대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학생의 가정 배경 요인이 가정 요인에 그치지 않고 학교의 사회경제적 지위로도 연결되어 높은 성취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볼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지 않은 가정의 학생들이 더 높은 학업성취 및 교육 수준에서 소외되지 않고 열린 기회를 가지고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사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중 전환점의 한 가운데에 와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해 이들의 주요 발달 과업인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향 요인으로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그릇, 교사와의 관계를 보고자 하며 여기에서 가정 배경을 통제 변수로 하여 학업 성취도와의 영향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해당 시기에 요구되는 발달에 맞게 학업적인 성취를 해나감에 있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확인하고 개인 및 학교, 사회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적용 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 1학년은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 전환되는 첫 출발점이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의 시작 지점이다. 이렇듯 대학교에서 첫 출발점

에서 있는 신입생들에게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의 시작 지점으로서 교양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후, 대학생들에게 교양교육에서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을 대학 교양 정책이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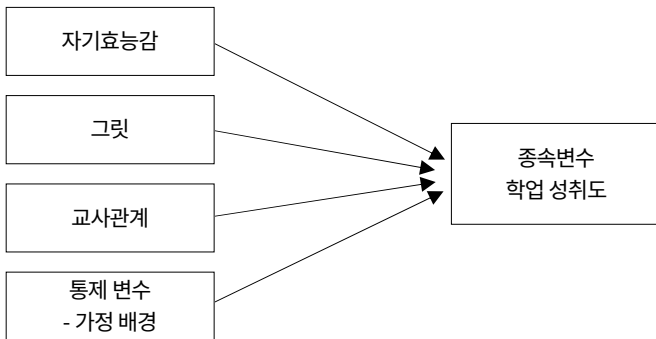
연구문제 1. 자기효능감은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그릿은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교사 관계는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가정 배경은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4가지 연구문제를 토대로 구체적인 분석 틀로서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모형

2.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및 연구대상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년 중학교 1학년 학생 2,590명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 변수 설정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서 종속변수인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학생들의 주관적 학업 성취도 평가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매우 못함, 2=못함, 3=보통, 4=잘함, 5=매우 잘함”으로 측정하고 있다. 독립변수 중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자기효능감, 그릿, 교사관계는 다양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이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문항들을 채택하였다 (표 1 참고).

<표 1> 설문 문항의 구성 및 측정 수준

상위분류	하위분류	설문 문항의 구성	측정 수준
종속변수	성취도 주관적 평가	1=매우 못함; 2=못함; 3=보통; 4=잘함; 5=매우 잘함	1-5 (Likert)
효능감	나는 공부를 잘 한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1-4 (Likert)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1-4 (Likert)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1-4 (Likert)

그릿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1-4 (Likert)
	나는 노력이자이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1-4 (Likert)
교사관계	내가 공부나 다른 문제로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의논하고 싶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1-4 (Likert)
	선생님은 내가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충해주시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1-4 (Likert)
	선생님은 내가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1-4 (Likert)
가정배경	월 평균 가구 소득	1=소득없음 - 12=1,000만원 이상	범주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	1=최하; 2=하; 3=보통; 4=상; 5=최상	1-5 (Likert)
	최종학력 (아버지)	1=학교 안 다님 ~ 7=대학원 졸업	범주
	최종학력 (어머니)	1=학교 안 다님 ~ 7=대학원 졸업	범주
	평일 부모와 대화시간	1=전혀 안함 ~ 7=4시간 이상	범주
	주말 부모와 대화시간	1=전혀 안함 ~ 7=4시간 이상	범주
	가족과 통화	1=전혀 통화하지 않는다; 2=거의 통화하지 않는다; 3=가끔 통화한다; 4=자주 통화한다.	1-4 (Likert)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1학년의 학업 성취도(주관적 학업 성취도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종속변수를 측정하는데 학업 성취도 변수는 Likert 척도로 되어 있고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따라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순서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analysis)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ATA 16.0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중회귀분석과 순서로지스틱 회귀분석 분석방법을 통해서 진로 대화, 자아존중감, 그릿, 창의성이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고,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고려한 로버스트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적용하였다.

3. 연구결과

1) 학업 성취도 및 관련 변인 기술통계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변인의 최솟값, 최댓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유형별로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업 성취도 주관적 평가는 평균 3.420으로 자신의 학업 성취도를 보통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효능감 중 “나는 공부를 잘 한다” 변수는 평균 2.499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그런 편이다 중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평균 2.230으로 나타나 이 변수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변수에 대해서는 평균 2.561로 나타나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그런 편이다 중간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릿과 관련해서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평균 2.454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그런 편이다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노력가이다”에 대해서 평균 점수가 2.784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을 노력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관계에 대해서 “내가 공부나 다른 문제로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의논하고 싶다”에 대해서 평균점수가 2.279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은 내가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충해주신다”에 대해서는 평균점수 2.561로 나타나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그런 편이다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내가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 변수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가 2.773으로 나타나 선생님이 자신을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가정 배경과 관련하여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은 평균 2.962로 대부분이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했고, 월평균 소득은 평균 6.689로 대부분 월 소득이 400

만원에서 600만원 사이라고 응답하였다. 평일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평균 3.866으로 대부분 30분에서 1시간 미만의 대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부모와의 대화 시간은 평균 4.551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의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통화는 평균적으로 3.506으로 나타나 대부분 가끔 부모와 통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술통계

분류	변수	Obs	Mean	Std. Dev.	Min	Max
종속 변수	학업 성취도 주관적 평가	2471	3.420	.925	1	5
자기 효능감	나는 공부를 잘 한다	2590	2.499	.840	1	4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2590	2.230	.806	1	4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2590	2.561	.825	1	4
그릿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2590	2.454	.769	1	4
	나는 노력이자이다	2590	2.784	.739	1	4
교사 관계	내가 공부나 다른 문제로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의논하고 싶다.	2590	2.279	.797	1	4
	선생님은 내가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충해 주신다.	2590	2.561	.803	1	4
	선생님은 내가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2590	2.773	.760	1	4
가정 배경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	2585	2.962	.536	1	5
	월 평균 가구 소득	2587	6.689	2.286	1	12
	아버지 최종학력	2469	5.225	1.064	1	7
	어머니 최종학력	2516	4.999	1.015	1	7
	평일 부모님 대화시간	2590	3.866	1.423	1	7
	주말 부모님 대화시간	2590	4.551	1.573	1	7
	가족과 통화	2541	3.506	.646	1	4

2)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주관적 학업 성취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순서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순서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표3 참조). 독립변인은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가정 배경, 자기효능감, 그릿(Grit), 교사 관계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월 평균 가구 소득(.023, $p < .001$)과 아버지의 최종 학력(.044, $p < .000$)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월 평균 가구 소득이 높은 가정의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가 높았고, 아버지의 최종 학력이 높은 가정의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가 높았다. 어머니의 최종 학력과 부모와의 대화나 통화시간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나는 공부를 잘 한다” 변수(.577, $p < .000$)와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변수(.153, $p < .000$), 그리고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변수(.049, $p < .00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이 공부를 잘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주관적 학업 성취도 평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릿의 변수들을 살펴본 결과, “나는 노력이자이다” 변수(.041, $p < .06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유의성이 크지 않았고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 어렵다” 변수(-.047, $p < .018$)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도 집중하기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 관계의 통계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내가 공부나 다른 문제로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의논하고 싶다.” 변수(-.032, $p <$

.09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유의미성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선생님은 내가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충해 주신다.” 변수 (-0.055, $p < .004$)와 “선생님은 내가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 변수 (.102, $p < .00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보충을 받지 않는 학생일수록 주관적 학업 성취도 평가가 높으며 선생님이 자신을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주관적 성취도 평가가 높았다.

종속변수인 주관적 학업 성취도 평가 변수가 5점 척도로 되어 있어 순서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했을 때 다중회귀분석과 통계적으로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서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다중회귀분석과 순서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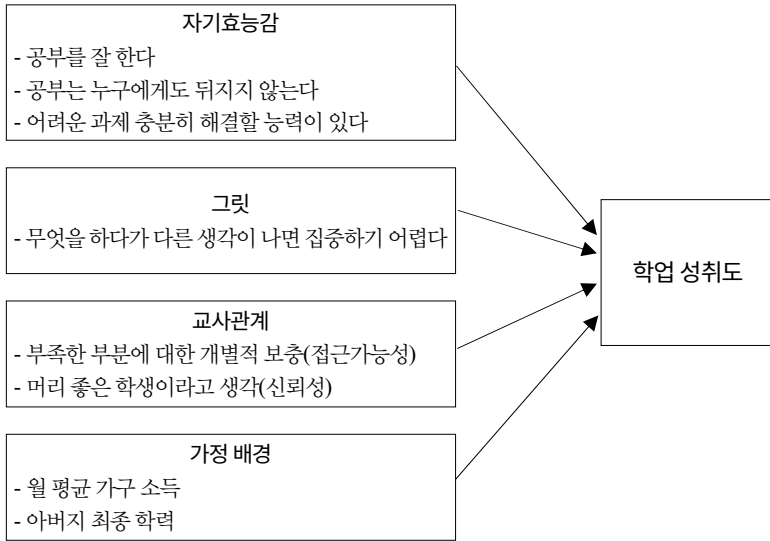
<표 3> 다중회귀분석과 순서로지스틱 분석 결과 비교

구분	다중회귀			순서로지스틱	
	B	Beta	P	Coef.	P
월 평균 가구 소득	.023** (.007)	.056	.001	.076** (.023)	.001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	-.022 (.029)	-.012	.451	-.114 (.093)	.220
최종학력 (아버지)	.044** (.017)	.050	.008	.135* (.054)	.011
최종학력 (어머니)	-.014 (.018)	-.015	.440	-.022 (.057)	.696
평일 부모와 대화시간	.025 (.017)	.038	.143	.083 (.053)	.113
주말 부모와 대화시간	-.029+ (.015)	-.049	.056	-.091+ (.047)	.051
가족과 통화	-.001 (.022)	-0.001	.969	.022 (.070)	.750
나는 공부를 잘 한다	.577*** (.029)	.523	.000	1.851*** (.099)	.000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153^{***} (.029)	.133	.000	.566^{***} (.095)	.000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049[*] (.025)	.044	.049	.137 ⁺ (.080)	.087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049[*] (.019)	-.041	.012	-.164^{**} (.062)	.008
나는 노력가이다	.042 ⁺ (.022)	.034	.058	.103 (.066)	.120
내가 공부나 다른 문제로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의논하고 싶다.	-.032 ⁺ (.019)	-.028	.093	-.112 ⁺ (.061)	.069
선생님은 내가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충해 주신다.	-.055^{**} (.019)	-.048	.004	-.156[*] (.062)	0.012
선생님은 내가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	.102^{***} (.023)	.084	.000	.342^{***} (.073)	0.000
상수	1.228 (.151)		.000	-	-
N	2246		2426		
F (Prob > chi ²)	.000		.000		
R ² (Pseudo R ²)	.529		.2945		

※ B = 비표준화계수. Beta =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standard error)는 괄호 안의 숫자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기효능감과 그릿, 그리고 교사 관계가 학생들의 주관적 학업 성취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자기효능감, 그릿, 교사관계와 학업성취 만족도 간의 관계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독립 변인으로 가정 배경, 자기효능감, 그릿, 교사 관계를 설정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순서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가정 배경 변수 중 월 평균 가구 소득과 아버지의 최종 학력이 학업 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어머니의 최종 학력과 부모와의 대화나 통화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아버지와 관련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중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질수록 교육적 관여가 잘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

다고 한 변수용과 김경근(2008), 중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생 및 학교 수준 모두에서 학업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보고한 백병부(2012) 등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이처럼, 가계의 월 소득과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업 수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학생들이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평등한 교육과 그로 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정책적 지원과 제도 마련이 요청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자기효능감 변수 문항 중에는 “나는 공부를 잘 한다.”,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만한 능력이 있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 간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박영신 외(2015)의 연구, 임효진과 이지은(2016) 등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를 볼 때, 학생들이 당장의 실패나 낮은 성취가 전부로 여기지 않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쌓아가고 작은 성취를 진척하면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도록 이를 잘 유지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자기효능감을 토대로 학습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학습 멘토링이 요구된다.

셋째, 그것이 주관적 학업 성취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나는 노력이자이다.”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유의성 정도가 크지 않았고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 어렵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것이 영어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보고한 박찬호·황명환(2019), 심미연·황명화(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생들이 단기적인 노력이나 성과에 집중하지 않고 노력과 인내를 지속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여 점차 더 장시간의 학습 시간을 견디고 이를 완료했을 때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일정 수준에서 제공하여 학습에 대한 성취감과 보람을 쌓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정 배경 변수들과 자기효능감 변수들, 그리고 그것 변수들

을 통제된 후 교사 관계의 통계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내가 공부나 다른 문제로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의논하고 싶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유의성 정도가 크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업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학교 풍토와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선생님은 내가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충해 주신다.” 문항은 학업 성취도와 부적 영향 관계로 나타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개별 보충을 해준 학생일수록 주관적인 학업 성취도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은 사교육 등으로 이미 학업적인 필요나 욕구를 충족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 말하면, 이외의 학생들은 사교육을 통해 선수학습을 했으므로 학교 교사를 통한 교육이나 보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사교육 중심이 아닌 학교 교육만으로도 학교, 교사 중심의 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양극화를 방지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선생님은 내가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교사가 학생의 수준에 상관없이 학생을 믿고 인정해 줄 때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에 대한 신뢰가 부모 관계에 비해 학업 성취도에 있어 2배 가까운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한 장희원·김경근(2015)의 연구, 중학생에 있어 교사-학생 관계가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백병부·김정숙(2014)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간의 평등하고 신뢰 있는 관계 형성을 통해 교육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학업 성취도 변인은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학업 성취도 평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한 평가 결과와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제 학업 성취도 및 진단 검사 결과를 토대로 통계 분석을 함으로써 학업 성취도에 대한 학생

들의 주관적 응답이 아닌 보다 사실적인 결과에 기반한 분석 및 해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갓 진입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이는 중학생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기가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중학교 전 연령 혹은 다른 연령대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다양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에 관한 독립 변인으로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로 인해 실제로 학생의 학업성취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의 교수 역량이나 수업 경험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후에는 학생들의 학업에 주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교사의 교수 역량을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이것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2018년도에 수집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로 인해 다른 시점 혹은 여러 시점에 걸친 연구 결과의 양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다년간에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점의 발달 경향을 종단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주관적인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는 자기 스스로 얼마나 기초교육에 대해서 만족감과 자신감을 갖는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결국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기초교육을 통해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감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에서의 교양교육은 물론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기초교육으로서 교양교육을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기초 교양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단순히 입시와 취직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양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중학교 1학년은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 전환되는 첫 출발점이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의 시작 지점이다. 그래서 초등교육과 달리 중등교육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연구 대상 중학교 1학년은 중요하다. 이렇듯 대학교에서 첫 출발점에서

있는 신입생들에게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의 시작 지점으로서 교양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는 가정 배경과 같은 변화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기효능감, 그릿, 교사 관계와 같이 대학의 교양교육 정책이나 프로그램 등에 의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대학 교육에서 단순히 취업에 국한된 교양교육을 실시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자아를 탐색하고, 계발하고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삶의 목표를 계획, 실천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다양한 교양 교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덕천, 2013, 「청소년 기초교육」, 교육신문. https://edugrad.korea.ac.kr/edugrad/newspaper/newspaper_watching.do?mode=download&articleNo=53688&attachNo=41238&totalNoticeYn=N&totalBoardNo=.
- 김성양·조규판, 2018, 「여고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학습전략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8집 11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455-472.
- 김현진, 2013, 「교사·학교장 신념과 중학생의 자율성 및 자기효능감, 학업 성취도의 관계 분석」, 『교육학연구』, 한국교육학회, 제51집 2호, 117-143.
- 박영신·이임순·이상희·김태우, 2015,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와 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제29집 3호, 한국교육심리학회, 505-542.
- 박찬호·황명환, 2019, 「부모의 학업 관여, 그것이 영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집 9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67-97.
- 변수용·김경근, 2008,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정 배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제18집 1호, 한국교육사회학회, 39-66.
- 백병부, 2012, 「가정 배경에 따른 학업성취 격차와 수행평가의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제22집 3호, 한국교육사회학회, 111-132.
- 백병부·김정숙, 2014, 「학교 내 사회자본이 학업성취 격차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제52집 1호, 한국교육학회, 221-249.
- 성기선, 2010, 「중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가정 배경의 영향력 변화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중학생 1988년과 2007년 비교 -」, 『교육사회학연구』, 제20집 3호, 한국교육사회학회, 83-103.
- 심미연·황명환, 2019, 「국내 고등학생의 자율성, 영어 학습 전략, 그리고 영어학업 성취도의 관계성 연구」, 『영어교과교육』, 제18집 4호,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 161-188.
- 이숙정·김희란·모화숙, 2018, 「학업 성취도와 자기효능감 간의 종단적 관계: 중학생의 국어와 수학의 교과 내, 교과 간 관계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 그것, 교사 관계가 중학교 1학년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51

- 육연구』, 제18집 4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675-697.
- 이정림·권대훈, 2016, 「통제 소재, 마인드셋, 그릿,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3집 11호, 한국청소년학회, 245-264.
- 임효진·이지은, 2016, 「중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수업능력,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의 중단적 변화 - 영어, 수학과목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3집 6호, 한국청소년학회, 71-95.
- 장희원·김경근, 2015, 「학업성취에 대한 학생 사회경제적 구성의 효과: 계층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제53집 2호, 한국교육학회, 27-53.
- 전윤지·김경근 (2013). 「가정 배경, 교사지지, 컴퓨터 이용 행태, 학업성취 간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제19집 1호, 안암교육학회, 5-34.
- 주영주·서혁·윤성혜 (2017). 「고등학생 국어 교과 학업 성취도의 영향 요인 분석」, 『국어교육』, 제157집, 한국어교육학회, 285-308.
- 최권·전민재·안효영·진하늘·도승이 (2013). 「중학생이 지각한 교사 및 교우 관계가 수업 참여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제14집 4호, 교육연구소, 281-306.

**Analysis of factors of self-efficacy, grit, and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ffecting middle school
students'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evaluation:**
Insights and Implications for General Education in Korea

Yoo, Jisung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evaluation of middle school first grade student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by using the survey data (N=2,590)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family background was set as a control variable, and the effect of self-efficacy, grit, and teacher relationships on academic achievement were examined. For the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As a result,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confirmed between self-efficacy, grit, teacher relations, family background, and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this study, it will be possible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the recognition of academic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confirm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Keyword ● Self-efficacy, Grit, Teacher relation,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Middle school first grade students

논문투고일 : 2023. 06. 06. | 심사완료일 : 2023. 06. 15. | 게재확정일 : 2023. 06. 16.

